

CMC 시장놓고 고제 · 한비 격돌

국내 수요 2000톤 규모 ... 한국비료 2500톤 공장 완공

한국비료(대표 유경중)가 CMC시장에 신규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 CMC를 독점 공급해오던 고제(대표 김동한)와의 시장싸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.

국내 CMC 수요는 연간 2000톤 규모로 한국비료가 올 연말 시판을 목표로 10월 공장을 준공, 연 2500톤의 CMC를 생산할 계획이어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한국비료는 10월7일 한국정밀화학진흥회 주최 제1회 신상품 설명회 및 정보교류에서 Ethyleneamines(EDA · DETA · TETA · TEPA · AEP)계, Sodium Alkoxides(Sodium Methylate, Sodium Ethylate)계, CMC, TEOF, DEM유도체(Barbituric Acid, Malonic Acid, EMME), TMAH, NMP, PCM 등 8개 제품 생산공장이 93년 2월~12월사이에 준공돼(CMC는 92년 10월), 시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.

신상품중 NMP(N-Methyl-2-Pyrrolidone)는 금속세정제 CFC 대체품 및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반응용 매로 국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장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2/11/1>